

제345회 제1차 임시회
제1차 교육위원회
2024. 2. 27.(화)

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512
발의일자	2024. 2. 16.
회부일자	2024. 2. 19.



교 육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이경형)

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조용진 의원 외 13명

2. 제안이유

- 경북 관내 각급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(안 제3조)
- 다.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라. 학교 먹는물 공급 사업 등(안 제5조)
- 마. 학교의 먹는물 관리(안 제6조)
- 바. 정수기 설치 및 점검(안 제7조)
- 사.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4. 관련법령

- 「먹는물관리법」
- 「수도법」
- 「유아교육법」
- 「학교보건법」
-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

5. 입법예고 결과: 의견수렴중(의견없음)

6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법제심사(예산입법담당관): 검토 완료
- 나. 규제심사: 규제사무 없음
- 다. 부패영향평가: 부패 유발요인 없음
- 라. 성별영향평가: 이상 없음
- 마. 해당부서의견: 검토 완료
- 바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

7. 검토의견

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먼저 안 제1조는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과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.
-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리계획, 먹는물 공급 사업, 학교의 먹는물 관리, 정수기 설치 및 점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5호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의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대상임.
- 먹는물 관리는 타시도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도민들이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임.
- 경상북도 초·중·고·특수학교 등 954개교 급수시설은 상수도 942개소, 지하수 12개소¹⁾가 있고, 정수기 5,48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, 2023년 수질검사 결과 정수기 11대를 부적합 판정되어 교체함.

1) 미검사(4교): 음용수는 생수 사용, 지하수는 화장실 용수로만 사용

검사(8교): 음용수는 생수 사용, 지하수를 손 씻기용 및 양치물로 사용

○ 경상북도 학교 급수시설 현황

(2023년 12월 기준, 단위: 개)

구 분	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/각종	계
전체학교수		494	262	183	15	954
급수시설	상수도	487	259	182	14	942
	지하수	7	3	1	1	12
정수기수		1,402	1,559	2,430	97	5,488
정수기 부적합 교체		3	2	6	0	11

○ 경상북도교육청은 먹는물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노후 수도관 개선, 배관성능향상장치 도입, 급수관 세척 등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교 먹는물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.

○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,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합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.

※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: 9곳(경기, 경남, 광주, 세종, 울산, 전남, 전북, 충남, 충북)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